

## 『 조선 최고의 민간정원, 담양 소쇄원 』

지리교육과 1학년 서지예

## ☞ 답사포인트

- 소쇄원에 녹아 있는 한국 정원의 특징을 알아보자.
- 중국 정원, 일본 정원, 한국 정원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소쇄원은 조선 최고의 민간정원으로서 경상북도 영양군의 서석지,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정원 중 하나이다.

소쇄원을 답사할 때는 한국 정원의 특징과 사상을 알아보고, 중국 정원, 일본 정원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추계 정기 학술 답사 때 가 보았던 중국 소주의 졸정원과 비교해 본다면 중국 정원과 한국 정원의 비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쇄원을 통해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생각과 함께 도교적 향취, 유교적 향취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

## 1. 소쇄원

## 1) 소쇄원 개관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항상 가까이 곁에 두고자 정원이라는 장치를 만들었다. 세계의 정원은 유럽과 동양으로 대별되며 동양은 중국과 일본, 한국으로 나뉜다. 소쇄원은 한국의 3대 정원 중 하나로, 빼어난 경관 덕분에 ‘한국 최고의 별서정원(別墅庭園)<sup>50)</sup>’이라 불린다.

소쇄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원림으로 양산보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광주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이 지방의 진산인 무등산이 바라다 보이고 뒤로는 장원봉



《소쇄원 광풍각》

출처:소쇄원 공식 홈페이지

50) 세속의 벼슬이나 당파싸움에 야합(野合)하지 않고 자연에 귀의하여 전원이나 산속 깊은 곳에 따로 집을 지어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려고 만들어 놓은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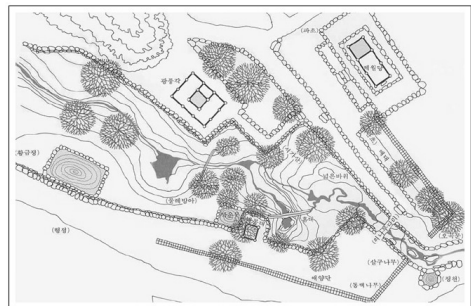
즐기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곳으로 무등산 원효계곡이 광주호로 흘러 내려오는 증암천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의 경승지와 더불어 담양 지역 선비와 주민들의 휴식장소로서, 학문도야 장소로서 넓게 이용된 식영정, 면앙정, 송강정, 환벽당, 취가정, 독수정 등 많은 독립된 정자들과 원림들이 포치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쇄원이다.

## 2) 소쇄원의 어원

소쇄원(瀟灑園)의 瀟는 ‘빛소리 소, 혹은 물 맑고 깊을 소’ 이고 灑는 ‘새, 새, 혹은 사’ 라고 읽을 수 있는데 ‘물 뿌릴 새나 깨끗할 새’ 라는 뜻과 음을 갖는다. ‘소쇄’란 공덕장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나오는 말로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말이다. 결국 소쇄원의 이름을 풀어쓰다면 ‘물 맑고 시원하며, 깨끗한 원림’이라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덧붙이면 ‘속세를 떠난 느낌이 있다’는 뜻으로도 말할 수 있다.

## 3) 소쇄원의 입지와 기능

소쇄원은 살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치 좋은 곳에 조성된 정원으로 전원생활과 문화생활을 함께 한 공간이다. 상주하는 일상생활용 주거에서 도보거리에 있는 가까운 경승지에 조성된 제 2의 주거와 주변의 원림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건물은 상주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아무래도 간소하게 되어 한시적 체류를 위한 구조로 지어지고 인접지에 관리인의 상주주택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원은 건물과 옥외공간이 사실상 일체가 되거나 옥외공간이 건물보다 우세한 형국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소쇄원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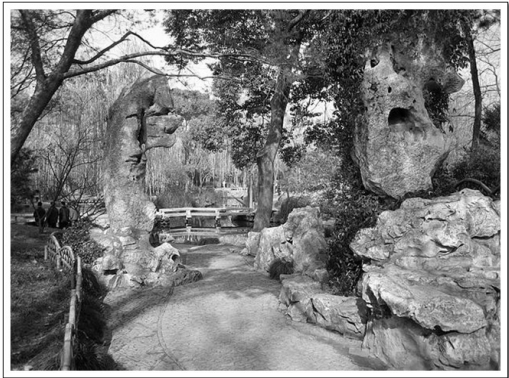
출처:예슬로

즉 소쇄원은 생활기반인 창암촌과 지척인 곳에 위치하는 삶의 공간이고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강학하는 학문의 장소이며, 풍류와 위락의 공간으로 제공되어 당대의 문인들이 ‘누정가단(樓亭歌壇)’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이곳은 풍경에서나 의미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별서에는 정(亭), 사(榭), 현(軒), 당(堂)등의 건물을 짓고 오늘날의 별장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였는데, 소쇄원에서도 이러한 건물들을 볼 수 있다.

## 2. 정원의 역사

### 1) 중국의 정원

동양 문화의 발생지로 일컬어지는 중국에서는 기원전 246-210년에 난지궁의 연못에서 섬을 만들어 봉래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뒤 한나라에서는 무제 때(기원전 140-87) 삼신을 만들어 그 위에 청도이나 대리석으로 새나 물고기 형상을 만든 조각품을 얹었다고 한다. 이 삼신산은 고대 한민족이 동해 바다 한가운데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섬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유래되었던 것이다. 즉, 정원의 못 속에 삼심산<sup>51)</sup>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어 조석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자기도 신선 못지않게 불로장생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꾸밈새를 고안해 낸 것이다. 이 양식을 신산 정원 양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정원과 일본의 초기 정원 양식에서는 이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뒤 최근세에 이르기 까지 중국에서는 신선 사상이 정원 양식 속에 담겨져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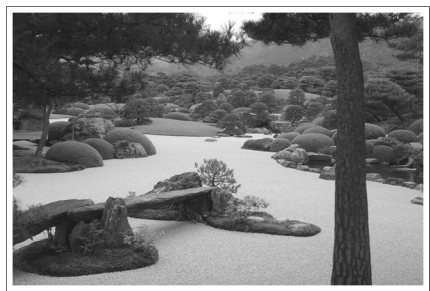
《졸정원의 기암괴석》

유원, 이화원, 승덕이궁과 함께 중국 4대 명원 중 하나이다.

출처:엠파스 블로그

### 2) 일본의 정원

서기 612년에 백제 유민의 노자왕의 궁실 남정에 오교(吳橋)를 축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의 학자들은 이것을 일본의 정원의 시초로 보고 있다. 그 뒤 평안조(平安朝)가 되면서 귀족이나 세도가의 저택에 정원이 꾸며졌는데 이것은 신라시대의 신선정원이다. 그 뒤 14세기로 접어들면서 불교 특히 선사상(禪思想)과 묵화(墨畵)의 영향을 입어 축산고산수평법<sup>52)</sup>이 태어나고, 또한 15세기에는 평정고산수평법<sup>53)</sup>이 생겨났다. 그 결과 자연석을



《아다치 미술관 정원》

일본 최고의 정원으로 뽑힌 정원이다.

출처:엠파스 블로그

51)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세 신산(神山)

52) 바위(폭포), 왕모래(냇물), 다듬은 수목(산봉우리)등으로 추상적인 정원을 꾸미는 방법.

53) 불교의 영향을 받아 물과 수목을 완전히 배제하고 바위가 부각되도록 정원을 꾸미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이 크게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원의 특색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돌에 치중한 결과 부동석, 관음석, 삼존석, 주호석 등 돌 하나에 뜻이 담겨져 격식화 되면서, 수목의 위치가 정해짐으로써 마치 틀에 박힌 듯한 외모를 드러내는 결함을 빚기도 한다. 16세기가 되면서 다도가 성행하여 이를 위한 간소한 정원 즉, 차정 양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 정원은 소박한 야취와 적막한 분위기가 감도는 아주 규모가 작은 정원이다. 그 뒤 정원의 형태가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 한국의 정원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를 접어들면서 정원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즉, 서기 390년에 왕실을 중수(重修)하면서 연못을 파고 계단을 쌓아 올려 진기한 물새를 키우고 화초를 가꾸며 즐겼다는 기록이 그 시초이다. 그 후 백제 무왕(武王)(서기 634년)에는 궁납지(부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에서는 삼국 통일을 이룩한 직후인 문무왕 14년(서기 674년)에 현재 경주에 남아있는 안압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연못들은 모두 신산 정원 양식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고구려에서는 양원왕 7년(서기 551년)에 평양 시가의 동북방 대동강변에 안화궁을 축조하여 전각 남정에 정원을 꾸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원의 구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백제나 신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산 정원 양식에 의한 것을 추측된다. 고려시대는 중국 양식 일변도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조시대를 접어들면서 한국적인 고유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조시대에는 국교로서 유교(儒敎)와 풍수지리설이 성행하는 바람에 그 교리가 정원을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국부(局部)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창덕궁(비원)의 낙선재 계단이라 하겠고, 우리나라 경주 일원에 꾸며져 있는 정원들이다.



《담양 소재원 오곡문 펜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담장 밑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수구(水口)이다. 개울 바닥에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담장을 지어 자연스런 물길을 막지 않으려 한 것으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정원을 지으려고 한 선조들의 정원관이 돋보인다.

출처: 중앙일보 칼럼 김영택 갤러리.

펜화가 김영택 作

## 3. 중국, 일본, 한국의 정원 비교

구 분		중 국	일 본	한 국
사상적 배경		도가사상, 유교	정토사상, 신선사상, 다도	유교, 불교, 신선사상, 풍수지리, 음양오행, 자연숭배사상
입지		평지	평지	구릉지
양식		회화식	자연풍경식	자연풍경식
구성 기법		대비	조화(축소 지향)	조화와 대비(인간이 척도)
건물 배치		수평, 수직	수평적	수직적
구성 요소	자연적 요소	* 규모가 큼 * 수목의 상징성과 관련된 식재(소나무, 사군자, 연꽃 등)	* 수목에 인위성을 가함 * 수경사용의 다양성(폭포, 연못, 고산수 등)	* 수목의 상징적, 풍수적 측면과 관련된 식재가 많음 * 자연에 흐르는 물을 이용
	인공적 요소	* 장식이 화려함 * 석교가 주류, 아치교의 발달	* 중국보다 재료, 기교가 단순 * 곡교 및 직교	* 일본보다 재료, 기교가 단순 * 석교 및 평교(일부는 홍교 사용)
자연과의 관계성		자연과 경쟁, 부조화	자연의 축소 재구성, 자연과 조화	자연과 협력, 자연에 동화

## 4. 맺음말

담양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정원답게 입구부터 굵고 푸른 대나무가 쪽쪽 뻗어있는 소쇄원. 세상과 세월을 등지고 산 선비의 정신을 느끼고 자연친화적인 한국 정원의 공간 배치를 둘러보기에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없다. 특히 계곡의 자연 모습 그대로를 따라 건축물과 수목을 조성했기 때문에 인공적인 느낌의 외국의 정원과 달리, 인간과 자연이 빚어내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우리의 전통 정원은 자연에 대한 인간 순응 사상을 엿볼 수 있었다.

거대하고 엄청난 구조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자연 속에 일부가 되어 꾸민 듯 아늑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선비정신. 이 모든 것들이 소쇄원이 우리나라 3대 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도록 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해진다.

### ★ 읽을거리

#### 《소쇄원은 정원일까, 원림일까?》

소쇄원을 정원(庭園) 혹은 정원(庭苑)이라고 해야 할지, 원림(原林)이라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으나 원림이라 부르는 것이 더 낫다. 일반적으로 원림이란 정원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의 뜻은 사뭇 다르다. 정원이라는 말은 역사가 짧은 말로 일본인들이 메이지시대에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에 이식된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정원이 도심 속의 주택에서 인위적인 조경작업을 통하여 ‘동산’의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라면, 원림은 교외(옛날에는 성밖)에서 동산과 숲의 자연 상태를 그대로 조경으로 삼으면서 적절한 위치에 집과 정자를 배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원과 원림에서 자연과 인공의 관계는 정반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원과 원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어원을 살펴보면, 정(庭)과 원(園), 혹은 원(苑)의 뜻은 어느 정도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원을 한자로 표기할 때 ‘庭園’과 ‘庭苑’등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庭園’이 널리 쓰인다. ‘庭’은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고, ‘庭(뜰)’의 쓰임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은 건물로 된 인공공간으로 평면적이고 소규모 식재가 이루어진 반면, ‘園(동산)’은 식물 위주의 자연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苑’은 제왕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庭園’은 본래 궁중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후세에 와서는 뜰을 가리키는 말, 혹은 당(堂) 아래부터 문(門) 사이, 또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말하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園’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과는 달리 과일나무나 채소를 심어 가꾸는 자리로 울타리에 의해 둘러싸인 곳을 말하는데, 중국에서 사실상 정원의 시작인 한대의 상림원(上林苑, 한의 무제가 기원전 138년에 장안에 꾸며놓은 정원)에서 ‘園’ 대신에 동음의 ‘苑’을 사용한 이후부터 동양에서는 ‘庭苑’이라고 써왔다.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

## ☞ 생각해보기

현재 소쇄원 광풍각(光風閣) 앞 계곡의 석축(石築·높이 3m) 50m 중 30m 가량이 무너졌고, 배수로가 사라지고 있다. 입구에 조성된 대나무밭도 훼손이 심해 높이 1m의 울타리를 쳤다. 또 소쇄원 내에는 지난 1983년 18종의 초본류와 24종의 목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5년 조사 결과 고사리 등 초본류가 사라지고 왕벚나무와 백일홍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지반 침하로 소쇄원 곳곳에서 담장과 도로 사이가 갈라지는 등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 광주일보 이종행 기자

- 현재 소쇄원은 늘어난 관광객들과 관리 미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참고문헌》

- 원대연 / 1997 / 건축가 원대연의 여행 넘어서기1-한국·중국 / 플러스문화사
- 천득염 / 1999 / 한국의 명원 소쇄원 / 발언
- 송재손 / 2004 / 정원과 조경 / 오성출판사

## 《참고사이트》

- 소쇄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soswaewon.org/>)
- 중앙일보 칼럼 ‘김영택 갤러리’ (<http://www.joins.com/>)
- 엠파스 블로그(<http://blog.empas.com/fri13th/14642332>)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파란 블로그(<http://blog.paran.com/15270/19932111>)
- 예술로(<http://www.art.go.kr/>)
- 엠파스 뉴스(<http://news.empas.com/>)